

대행 스님

이 세상살이 만사가 다 한마음으로서 빚어지는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여러분 앞에 다 주어져 있으니 주저 마시고 어떠한 분야에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나 실험을 해 보세요. 비리비리 그냥 남한테나 기대고 그냥 남에게 의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죽든지 살든지 좀 결단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시려고요? 이 세상 끝 간 데 없이 그 고비를 넘기려면 얼마나 많은 그 시련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삶의 보람도 없이 말입니다. 또 고생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는 게 고생이에요, 알고 보면. "그럼 살지 말라는 얘기죠?" 이럴 테죠? 살더라도 맛을 알고 사시라 이거죠.

이 세상은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야심경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고 계세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가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만남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나 보세요. 그런데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다 보니까 인젠 지쳐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저놈으로 인해서 망했지, 저놈이 잘못해서 뭘 어떻게 했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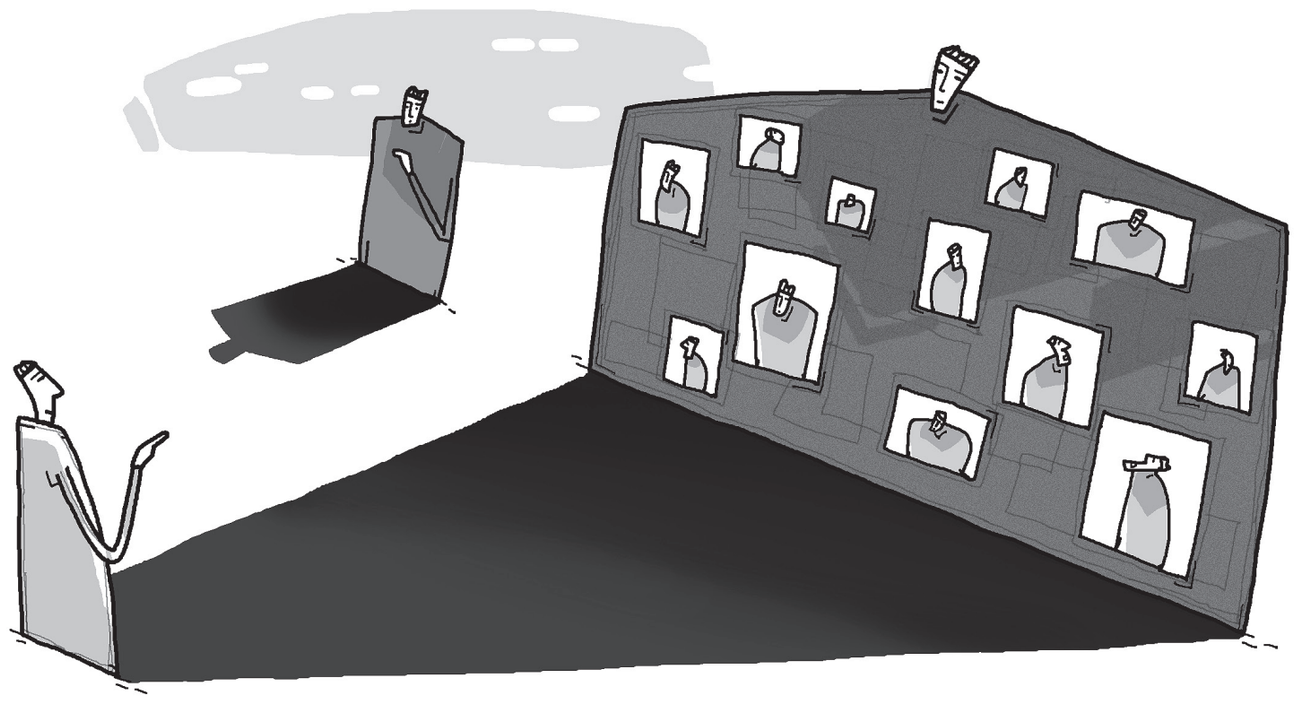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떤 사람이 꿈을 꾸면 꼭 꿈대로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네 기와집 양쪽 대들보가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거야. 그랬으니 이건 껌뻑 죽어서 그냥 온 거야. 이건 큰일이 났죠, 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허! 모든 업보가 모두 부서져서 내리는구나." 하하하. "모든 업보가, 그 업보가 부서져서 내리니까 너희는 좋은 일 있겠다." 그러니까 날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이가 없죠, 인제. 날 봐도 눈초리만 나한테 있지 지금 초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조건이다. 너희 좋은 대로 생각해서 거기 놓는 거지 사람이 생각, 사량으로써 '이건 절대로 사람은 못 한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못 한다.' 이렇게 결정짓지 마라. 할 거든지 못 할 거든지, 나쁜 거는 좋게 생각해서 놓을 때 감사하게 놓고 또 잘되는 거는 잘되는 대로 감사하게 놓고, 자기 주인한테 모든 거를 다 맡겨라." 아, 육신이야 뭐, 끌고 다니다가 훌떡 버릴 거, 허허, 제 육신 제가 훌떡 버리고 또 형성시켜서 훌떡 들어가서 살고 이러는 놈의 거, 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생각을 잘함으로써 이 세상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해서 창살 없는 구멍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모 빚도 못 갚고 은혜도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렵니까? 여직껏 물 주고 공기 주고, 하하하, 흙에서 살고 바람 주고 불 주고 다 한 그 은혜는 또 어떻게 갚아요? 그건 돈 안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좋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넉넉하게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잘 들으셨죠?

자력과 통신력 광력 전력, 그런 것이 다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믿고 실천을 하는 데에 멋진 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멋진 게'라는 거는 묘법이란 뜻입니다. 묘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거예요. 뭐, 불가사의하다 이러고 아주 위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안 해 보셔서,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두들 그런 거죠.

나는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장면 한 그릇을 못 먹어 봤다면…, 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자장면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예전에 자장면 한 그릇 먹어 본 지가 아마 근 십 년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수로다가 해서 그걸 하니 무슨 맛이 나요? 그러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그 자장면 참 맛 좋았어.' 그런데 그걸 먹어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면 생각이 납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깐 여러분은 항상 여기 오셔서 비디오로 하시는 거나마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들으심으로써 이 속의 업식들이 전부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듣는 순간 이 수십억의 의식들이 들어요. 듣는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질문 없으세요?

질문자1(여) 이렇게 가까이서 스님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십 년 넘게 혼자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전혀 가르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문도 아니고 그냥 넋두리 같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비디오를 볼 때마다 저 스님께 한 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 그것이 제 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큰스님 예, 예. 좋아요. 그 생각을 하셨으니 앞으로는 잘되실 겁니다. 그 생각이 바로 여러 가지를 빚어낼 수 있는 동기가 되니까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 바로 나를 내가 낮추는 그런 마음이 말입니다. 자기가 남을 가르치고 그런다 해서 자만과 오만 이런 걸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이건 금물이죠. 지렁이 생명이나 벌레 생명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날아다니는 새, 다람쥐, 이런 것들 하나도 우리 생명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업신여기고 한대서야 말이 됩니까?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업신여기면 업신여기는 대로 벌써 내 앞에 딱 다가옵니다. 그 사람한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 가지고 자기가 그 음파를 집어먹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지요. 딴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한생각으로 때로는 신장이 되시고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